

한국 후가공시장의 전망



한국의 후가공 시장은 모든 공정히 분할되어 있던 구조였습니다. 인쇄하여 나온 결과물을 제본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공정에 맞춰 해당 업체에 외주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중철, 접지, 제본, 재단이 다 독립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쇄업계의 최대 화두인 소품종 다량화가 진행됨에 따라 동일한 책을 많이 발간하는 구조는 사라져 가고 있으며 이는 POD시장과 포토 프린트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그 흐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프린트를 구비한 사업주는 후가공 공정을 외주로 주었으나 결국에는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업자들 뿐 아니라 관공서, 공기업, 군부대 등 가격적인 면보다 빠른 납기를 중요시 하는 곳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후가공만 하는 곳에서는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디지털 프린터를 고려하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프린터만 구비한 곳에서는 외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후가공의 내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서 소규모의 인쇄업체, 후가공 업체에서도 소량다품종의 인쇄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제본 시스템 즉, 자체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프린터는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교육을 통해 쉽게 다룰 수 있지만 후가공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테랑 기사가 부족한 지금, 후가공 기기도 초보자라도 바로 조작 가능한 형태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루파에서도 호응 받은 Cabs정합기

호리존의 제품을 예로 설명 드리면 호리존의 대표 제품인 Cabs 4000과 Cabs 5000은 암식 정합기, 15클램프 제본기, 삼면재단기로 이루어진 무선철 라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abs 4000은 최대 생산 속도가 시간당 4000사이클이고 Cabs 5000은 5200사이클입니다. 독일에서 열린 드루파 2008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은 제품으로 인쇄의 본고장 독일에서 7대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국제 인쇄산업에서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도 이미 10대가 가동 중입니다. 이토록 국제무대에서 인정 받는 이유는 자동화의 정도에 있습니다. 접지물을 정합기에 놓고 그 사이즈와 표지 사이즈를 입력만 하면 정합기, 제본기, 삼면재단기가 5분에서 10분안에 자동 세팅됩니다. 데모 작업시에도 오퍼레이터는 1명 이고, 실제 필드에서도 1명 혹은 보조를

포함한 2명에서 15클램프 무선철 폴라인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해가는 인쇄시장에 최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이기에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일 책자를 1만부 이상 발간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처리해야 할 주문들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다른 책자를 제본 할 때마다 모든 클램프를 경험이 많은 제본기장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통 한 작업 당 기기 조정에만 40분 정도 걸리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Cabs 시리즈야 말로 적정 규모에, 초보자가 조작 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세트 변환이 용이한,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기기가 디지털 프린팅의 결과물 처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만큼 최적의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4클램프 자동 무선철기인 BQ·470의 경우 특수제본인 PUR제본이 풀탱크 교체로 가능할 뿐더러 디지털 프린팅된 용지에 포함된 유분으로 인해 제본풀과 용지가 잘 붙지 않는 현상을 정밀한 풀 조정으로 최소화했습니다. 옵션인 내지 측정기에 책 두께를 재기만 하면 4클램퍼 모두가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또한 AFC·566F는 업계 최초로 완전 자동을 실현한 B2사이즈 접지기로 용지 사이즈와 접지 패턴만 입력하면 전 개소가 자동 세팅될 뿐더러 마스터 클램퍼에 용지 1장만 끼우면 모든 롤러의 갭이 자동 조정됩니다.

이 모든 제품에 호리존의 철학인 인텔리전트한 자동화가 녹아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로 하여금 많은 관련 지식과 경험, 기기와 친해지기 위한 노력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품질만큼은 최상을 자랑합니다. 또한 호리존은 나사 하나에서 기판, 프로그램까지 생산되는 제품의 부품 90%이상을 자체제작 하기에 10년, 15년이 지나도 한결 같은 품질을 발휘합니다.

다이니폰스크린 코리아는 이번 KIPES 2008을 기점으로 2010년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IGAS까지, 후가공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다이니폰스크린의 CTP와 UV프린터는 물론, 코니카 미놀타의 디지털 프린터 및 미츠비시의 실버마스터기와 함께 호리존의 후가공 기기를 취급함으로써, 모든 공정을 아우르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열리는 KIPES 2008에 오셔서 그 모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택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 부장